

제28회 한남대학교 전국 고교백일장 심사평(운문 부문)

김홍진(문학평론가, 문예창작학과 교수)

예년과 같이 올해도 전국 고교 백일장에 전국 각지에서 많은 학생들이 참여했다. 글제는 '길'과 '진실'이었는데, '진실'이라는 주제는 다소 추상적이었는지 이를 주제로 쓴 학생은 흔치 않았다. 예년과 같이 주제에 대한 참신한 발상과 표현력, 완성도를 기준으로 심사했다. 또한 신선한 비유와 생동감, 대상을 바라보는 태도의 솔직함과 진정성, 초점을 벗어나지 않고 끝까지 주제를 밀고나가는 힘을 고려했다.

올해의 대상은 산문부분으로 돌렸다. 금상에 선정된 「할매와 갈대밭 가르마」(대구경화여고 1학년 도지현)은 1학년 학생의 작품임에도 자연스런 이미지 전개에 의해 조직해 작품을 완성한 점을 높이 평가했다. 할머니의 가르마와 갈대밭을 길의 이미지로 확장하면서도 흐트러지지 않고 주제의식을 잘 드러내는 점을 평가했다. 은상을 받은 「진실」(서울 삼성고 3학년 안찬우)은 다소 추상적인 시제를 구체적인 이미지를 통해 형상화하는데 성공하고 있으며, 다소 긴 호흡에도 압축미를 잘 살리고 있다. 동상은 「길」(청란여고 2학년 임정연)에 돌아갔다. 간결한 형태로 모두 다 가는 길에서 벗어나 자신만의 길을 탐색하며 고민하고 갈등하는 모습이 진솔하게 표현된 점을 평가했다.

최종 논의까지 오른 작품들은 상을 받은 작품들과 견주어 보아도 그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뛰어난 기량을 갖춘 작품들이다. 최종심에 오른 후보작들은 모두 전반적으로 기대 이상의 기량을 갖춘 가작들이다. 수상자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보내며, 아쉽게 선정되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위로를 보낸다.